

여행자에게 책이 귀한 이유

미얀마에서 읽은 《와일드 스완스》

한비아 · 오지여행가

한번 집 떠나면 일년 이상, 그것도 오지로만 다니는 사람이 평소 취향대로 책을 읽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눈썹도 빼놓고 가야 할 만큼 짐을 가볍게 꾸려야 하는 배낭여행자가 한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리다. 그래도 배낭속 숙소에는 읽고 난 책을 바꿔 보자는 메모가 늘

붙어 있고, 방콕이나 이스탄불, 카트만두 등에 있는 배낭족을 상대하는 중고책 서점들은 제법 구색을 갖춰 여행 중 읽을거리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여행자들이 보는 책은 읽기 쉽고 편한 것들, 예를 들면 연애소설류인 콜린 맥의 《가시나무 새》라든지 추리소설류인 존 그리샴의 《외리인》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때로는 《소피의 세계》나 《제3의 길》 등 영양가(?) 있는 책들도 만난다.

가끔 아주 반가운 책을 만날 때도 있다. 바로 한글로 된 책이다.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서점에는 한국책들이 거의 없거나와 있더라도 여행 가이드책이거나 선교활동을 위한 책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흘리고 간 월간 시사잡지라도 눈에 띄는 날이면 다 지나간 그 딱딱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꿀맛으로 읽곤 한다. 단지 한글로 찍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보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장영의 《와일드 스완스(Wild Swans)》(우리나라에는 《대륙의 딸》로 번역됐다)가 그랬다. 중국의 근대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여인 3대의 이야기인데, 중국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다. 미얀마의 어느 허름한 숙소에서 이스라엘 여행자가 다 읽은 책 있으면 바꿔 보자며 그 책을 내밀었을 때 어찌나 반가웠는지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나는 인도차이나반도 여행이

미얀마의 한여름, 온갖 물결과 날것들이 있는 숙소에서 그야말로 한쪽 한쪽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600페이지도 넘는 《와일드 스완스》를 밤낮없이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행자에게는 책이 귀한 까닭에.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중국여행을 할 계획이어서 더욱 그랬다.

미얀마의 한여름, 습도 110%, 영상 41도, 온갖 물결과 날것들이 있는 '곤충의 왕국' 숙소에서 그야말로 한쪽 한쪽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600페이지도 넘는 책을 밤낮없이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밤 10시가 되면 전기가 나가는 동네라서 촛불을 켜고 보느라, 불꽃으로 물려드는 수십가지의 물 것에 피를 기꺼이 헌혈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입맛대로 책을 골라 읽을 수는 없지만 이따금씩 만나는 이런 '특별 보너스'는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신 책의 모든 맛을 한꺼번에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것이 여행자에게 책이 귀한 이유다. ❖

우리말로 뛰어만든 정보서 기다려

깊이 있고 알뜰한 정보 <레츠고> 시리즈

송상용 · 한림대 교수

예습을 해가야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듯이 여행에 성공하려면 미리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요새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여행정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넓고도 깊은 정보는 아무래도 여행안내서를 따라가지 못한다.

해외여행이 사치였던 70년대에 유럽을 찾기 시작한 나는 마땅한 안내서가 없어 불편을 겪었다. 1983년 처음 나온 민서출판사의 《해외여행가이드》 시리즈는 일본교통공사의 책을 옮긴 것이었는데, 공항에서 택시로 호텔에 들어가려는 식의 돈많은 여행자 중심인 데다 수박겉핥기여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하버드대 학생들이 만든 <레츠고> 시리즈였다. 이 시리즈는 배낭여행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정보가 상세하고 정확해 잘 써먹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꽤 알아주는 <라프 가이드> 시리즈를 읽어 보충했다. 요즘에는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론리 플래닛> 시리즈를 애용한다. 알뜰여행

이제 한국도 여행대국이 됐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로 뛰어 만든 여행안내서 시리즈를 가질 만하다. 서점에는 여행기, 안내서, 기행문학이 많이 쌓여 있어 전문가들이 나서 옥석을 가려주는 것도 좋겠다. 여행자들도 안이한 여행보다는 여러 안내서를 읽어보는 게 좋겠다.

위주지만 중·고급 숙소와 식당도 안내해 편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말부터 몇가지 여행안내서가 빛을 보았다. 일본책을 번안한 것으로 보이는 동아출판사의 《월드투어가이드》는 별로 재미를 본 것 같지 않다. 일본 다이아몬드북사의 《지구를 걷는 법》을

계약번역한 중앙일보사의 《세계를 간다》 시리즈는 배낭여행 학생들의 필수 안내서로 자리를 굳힌 듯하다. 이 시리즈는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제일 낫기는 하나 피상적이고 일본취향에 따라 만들어져 한국인에게는 맞지 않는 것도 없지 않다. 이 책 때문에 한국학생들의 여행코스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것도 문제다. 이 책을 들고 물려다니는 한국사람을 보는 일본사람들에게 창피한 생각도 든다. <세계를 간다>보다 훨씬 질 높은 <론리 플래닛>이나 <레츠고>도 한두권 번역됐지만 나라, 도시별로 나와 있는 것을 다 옮길 수 없고 해마다 나오는 개정판을 따라 갈 재주도 없다. 본격적인 역사·문화관광을 하려면 《미술랭》 같은 외국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한국도 여행대국이 됐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로 뛰어 만든 여행안내서 시리즈를 가질 만하다. 어느 출판사가 기획했으면 한다. 서점에 가 보면 개별적인 여행안내서, 여행기, 기행문학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인기 있는 인도의 경우, 여행기만도 10여종이 넘는다. 여행전문가들이 나서 옥석을 가려 줬으면 좋겠다. 여행자들도 안이한 여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안내서를 읽으면 권위 있는 것이 떠오를 수도 있으리라. ❖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

아까워 절반쯤만 읽고 접어둔 책

영월 거운리와 안도현의 《사진첩》

김원 · 《페이퍼》 편집인

나는 탐험정신이 박약한 까닭인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곳저곳 개척(?)해가며 여행하는 타입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행을 나서면, 방향만을 정해둔 채 차를 몰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여행하길 좋아하거는 한다.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웃거리며 여행했던 곳 중에서

내 기억 속에 가장 깊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영월과 정선이다. 영월의 청령포와 동강의 어라연, 그리고 정선의 소금강과 물운대.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점심식사는 청령포가 내려다보이는 옥의식탁에서 막국수를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만큼, 영월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의 조건 중에서 그 첫째를 꼽으라면, '그곳으로 가는 길이 번잡스럽지 않을 것'이다. 가는 길이 번잡스럽고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면, 우선 여행의 시작부터 그 즐거움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의 바로 그 한명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 다니려 한다는 점이 어떤 때는 사실, 참 가소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알맞은 거리에 있을 것'인데, 이 알맞은 거리란, 내겐 60분짜리 카세트테이프 4개쯤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4시간쯤 운전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을, 나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향의 나에게 영월은 최적의 여행지인 셈이다. 청령포가 내려다보이는 음식점의 식탁에 앉아 시원하고 매콤하고 씹살한 막국수를 한그릇 비우고 나서는, 소나무 한그루 한그루마다 단종의 눈물이 배어 있을 것 같은, 강 저편의 유배지로 건너가 비감한 눈길로

청령포 내려다보이는 음식점 식탁에 앉아 매콤하고 씹살한 막국수 한그릇 비우고 나서는, 강 저편의 유배지로 건너가 비감한 눈길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세월의 무심함에 잠시 넋을 놓는 일도 좋은 일이다. 그 여행 틈틈이 나는 안도현의 《사진첩》을 읽으리라.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세월의 무심함에 잠시 넋을 놓고 앉아 있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바람 한줄기가 휘익 불어오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차를 몰고 동강의 어라연으로 향한다. 청령포를 빠져나와 30~40분쯤 동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남은 동강의 중심부 바로 가까이까지 차를 몰고 들어갈 수가 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는 곳이 거운리인데, 거운리까지 채 다 이르기 전에 왼편으로 강물 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솟아올라와 있는 곳이 있다. 그 강가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 아담하고 깔끔한 몇 개의 민박집이 나란히 서 있다. 그 중에 마음이 끌리는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서 3일쯤 머물기로 한다. 그 곳에 머물며, 하루는 동강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어라연에서 신선놀음을 즐기고, 또 하루는 두어 시간쯤 차를 몰아 정선 소금강엘 다녀오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 여행 틈틈이,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으리라. 안도현의 《사진첩》. 어렵지 않은 문체로, 천천히 옛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리 두껍지도 않은 책이지만, 반나절에 그냥 휘리릭 읽어버리기에는 웬지 아깝고 허전해, 절반쯤만 읽고는 접어두고 있는 책. 올 여름, 영월과 정선을 여행하게 된다면, 나는 그 여행길에 《사진첩》의 나머지 절반을 읽고 싶다. ❖

영월 동강의 어라연.



천불동에 보내는 한 외국인의 애정

운주사와 요헨 힐트만의 《미륵》

신현림 · 시인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바다를 같은 내 마음을 혼돈다. 차창 밖의 풍경도 설레는 마음따라 흔들린다. 이렇게 가다 보면 기분 나쁜 기억들은 천천히 잊혀진다. 이럴 때 여행의 묘미가 여기에 있구나 싶다.

지금 내 손엔 우리나라 지도와 책 한권이 있다.

운주사 천불전탑의 용화세계를 담은 독일 예술가 요헨 힐트만의 《미륵》. 물론 여행을 다녀와서 읽었다. 진작에 읽고 운주사를 마추했다면... 또 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민중문화의 뿌리를, 조형예술을 알고자 한다면 만산계곡에 가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역사적, 미학적 이유를 떠나 세월이 닳아서 더 더욱 신기롭고 정겨운 돌미륵들을 만나는 것. 돌미륵에 손이 닿을 때 오는 감회. 또한 그 배경에 젖어보고 싶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집을 떠나 다시 찾은 운주사. 만산계곡에 운주사라는 사찰은 없어지고 수천의 탑과 석불들만 남아 있는 곳. 불교미술의 익숙함에서 벗어난 파격미가 흐르는 곳. 이상하게 그리운 사람을 만날 때처럼 마음이 떨렸다.

6년 전에는 한참 공사중이었으나, 지금은 정리정돈이 다 됐다. 그런데 아니, 들어가는 길목에 현관문처럼 문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입구의 돌미륵 옆에

《미륵》에서 한국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과 의미는 한 외국인의 눈에 새롭게 발견된다. 글도 글이지만 그가 찍은 사진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운주사의 옛 풍경이 담겼다. 운주사에서의 기억과 책을 읽는 시간들은 깊은 총만감 속에서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한 개인이 화강암을 기계로 깎아 설치한 석탑과 석등은 흥취스러웠다.

운주사의 아름다움은 애써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허허롭고 모자란 듯 하지만 그냥 그대로 꽉 차 있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언제나 자식을 받아주실 것 같은 풍경을 지녔다.

더 이상 무지한 인간의 손과 자본주의의 손아귀가 뻗지 않길 바라면서, 멀리 탑 쪽으로 내 눈길이 닿았다. 7층석탑 앞에 합장을 올리는 두 남녀. 그래, 이곳은 행복과 풍요를 비는 인간의 기도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 아닌가.

먼 먼 시간 속에서 고려 백성들의 합장소리가 들릴 것 같아, 귀와 눈을 열어 침묵 속에 빠져든다. 인간의 갈망이 여기에 모두 가뒀진 듯 꿈틀대는 것 같다. 물고기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수족관처럼 운주사가 출렁거렸다.

요헨 힐트만이 "천불동이 나를 감동시킨다. 현대의 어떤 작품도 그만큼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천불동이 오늘날 예술작품이라 불리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대로 평범한 백성들, 그 익명의 손길로 만들어졌기에 더 감동스러운 것이 아닐까. 《미륵》에서 한국인이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과 의미는 한 외국인의 눈에 새롭게 발견된다.

글도 글이지만 그가 찍은 사진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운주사의 옛 풍경이 담겼다. 뜨거운 애정이 없이는 찍을 수 없는 사진. 예술은 사랑처럼 국경을 초월한다.

운주사에서의 기억과 책을 읽는 시간들은 깊은 총만감 속에서 나비처럼 날아오른다. ❖